연등회 '평화' 꿈꾸다… 北전통등 19점 선두 장엄

봉축위원회 5월 11~13일
한반도 평화 · 화합 의미 담아 거행

북한 문헌 통해 고증한 전통등
10만 연등 종로 밤거리 수놓고
각종 전시와 체험부스 운영 예정
생명 · 환경관련 프로그램도 눈길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 비롯해
조계사 앞 문화공연도 다채로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혜 · 자비 光明 세상 비추길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맑히자는 염원을 담은 봉축탑에 불이 켜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설정)는 4월 25일 광화문 북측광장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국민의 행복과 남북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광장에는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원형으로 만든 석가탑등(燈)이 설치됐으며, 탑 사방에는 지혜의 상징인 코끼리등을 장엄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올해 '평화'의 의미를 담아 거행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전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1~1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2018 연등회 본행사를 개최한다. 4월 25일 광화문 봉축탑 점등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 이번 연등회는 국가공휴일 명칭이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후 처음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문헌 고증을 통해 복원한 '북한등' 19점이 14일 저녁 진행되는 연등행렬에 대거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교계 염원을 엿볼 수 있다. 북한등은 과거 전시회서 공개됐으나 연등행렬에 다수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라 2개의 연등을 다는 'T'자 개인행렬등에 하나는 개인의 서원을, 다른 하나에는 나라와 사회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했다. 메시지는 연등회 참여 개인과 사찰이 직접 정한다.

또한 세대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이 만든 캐릭터 장엄등과 각 사찰 연등공방서 제작한 대형등 150점이 종로거리를 밝힌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후원하는 서울 수국사의 '스키점프등' '스노보드등', 화계사의 '숭산스님설법등', 한마음선원의 '관하는 부엉이등' 등은 해당 사찰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동국대 운동장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에는 어린이청소년 단체 48곳 1000여 명의 연희단과 각 사찰 성인연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율동을 선보인다. 올해는 연등회 노래를 랩과 뮤지컬, 가요풍으로 새롭게 작곡해 이에 맞춘 율동이 기대를 모은다. 201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를 랩으로 만든 '당신의 생일입니다'도 올해 연등회 노래에 포함됐다.

5월 13일 조계사 앞길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에는 70여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 전통문화체험을 비롯해 사찰음식, 명상, 세계불교문화, 도예, 힐링아트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40%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종 종이모형 만들기 △경허선사 나투시다 △강과 풀과 생명의 노래 △청소년 표현명상 상담 △평화통일은 부처님의 자비로 등이 있다. 아울러 공평동과 안국동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낮 12시부터 △플래시 몹 △선무도 △북청사자놀이 △승무 △남사당놀이 △각국 민속공연 △어린이 공연 △청소년음악놀이 페스티벌 등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서 전통등전시회가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이어진다. 조계사는 등 기둥과 연등행렬 참여 등을 전시하고, 봉은사는 민속과 동물에 얽힌 불교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또한 청계천서는 '영원한 동심, 빛으로 만나는 불심의 세계'라는 주제로 선재동자등과 별주부전등이 불을 밝힌다.

한편 주최 측은 최근 종로구간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류소가 행사에 지장 없도록 정류소를 분리해 양쪽 인도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 통제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주최 측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안전점검이 우선이다. 서울시와 교통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간혹 연등회를 불교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연등회는 무형문화재이자 범국민적인 축제다. 더불어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페스티벌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해 국민들이 더 쉽게 연등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 연등회 주요일정

5월 11~22일 전통등 전시회

5월 12일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5월 13일 전통문화마당
공연마당
외국인 등만들기
연등놀이

5월 22일 봉축법요식

동자승도 한반도 평화 기원, JSA간다

5월 8일 판문점 및 도라산전망대 방문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결집이 이뤄지는 가운데, 천진불들이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평화를 기원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동자승들과 함께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JSA법당을 참배한다. 조계사 동자승들은 이날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을 봉독하며 인근 도라산 전망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5월 2일 경내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 수계식'을 열고 적응 교육을 마친 동자승들을 맞이한다. 조계사는 2차례 면접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단기출가 적응력을 높였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근선연을 심어주기 위한 동자승 단기출가 및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속초 신흥사도 5월 3일 동자승 단기출가법회를 열고 5월 22일까지 경찰서를 비롯한 각 지역기관 및 복지시설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 내원정사도 5월 15일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개최한다.

단기출가 외에 유아법회도 다채롭게 열린다. 서울 조계사는 4월 15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봉은사는 4월 28일 제7회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사찰에서 가져온 청정수로 마정수기가 이뤄졌다.

사단법인 동련 또한 5월 26일 제34회 전국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문화제는 글짓기와 그리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시제는 '나의 행복', '칭찬', '기도' 등 3가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포교원, 웹툰작가 및 만화가와 일러스트작가 초청행사

제2의 '신과 함께'가 나오는 토대가 될까. 조계종 포교원이 웹툰작가와 일러스트 작가를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만화가와 일러스트 작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있어 불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템플스테이는 7월 13일과 14일 양양 낙산사에서 웹툰작가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2차 템플스테이는 보은 법주사에서 일러스트 작가 30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6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02)2011-1918

노덕현 기자

3급 승가고시 수석 성선 · 도원 스님 포상

조계종 고시위 25일 시상… 중덕 · 정덕 법계 품수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25일 교육원장실에서 3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인 성선 스님(비구)과 도원 스님(비구니)를 시상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승가고시에서 수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수행의 모범이 되는 종단 일원으로 살아달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날 3급 승가고시 합격자 259명(비구 162명, 비구니 97명)을 대상으로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초심을 다시 다져 각자 수행과 중생구제에 진력해 불조의 혜명을 잇고 불법홍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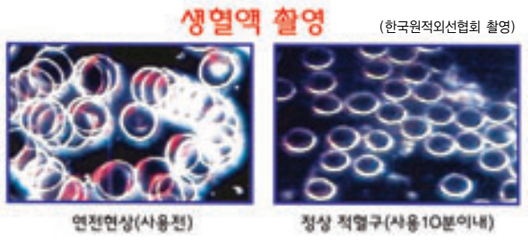
〈알립니다〉 본지 1194호(4월 25일자) 참불선원 육조단경 법회 기사 중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참불선원이 알려왔습니다.

"BLOOD MATE로 손 한번, 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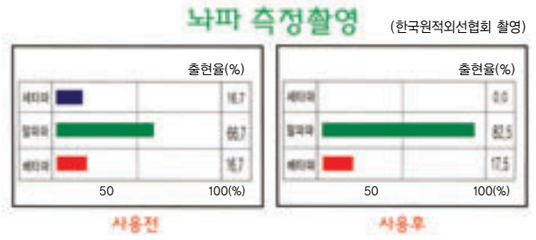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로 한번 씻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혈액 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의 기능 효과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